



프랜차이즈
메뉴·사업 '다각화'
L1



K콘솔게임 육성
155억 지원
L2

위생용품 지원, 구강관리 교육… “건강한 생활습관 알려요”



라이온코리아

전국 출산가정에 손세정제 무상제공
서울시와 ‘아장아장 캠페인’ 재단장
올해부터 5년간 4만명 임산부 지원

손세정제 ‘아이! 깨끗해’, 세탁세제 ‘비트’ 등 생활용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라이온코리아는 자사 제품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겠다는 기업 가치를 추구한다.

라이온코리아는 소비자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더 좋은 세상을 이뤄 나가겠다는 경영방침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10년 넘게 ‘아장아장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라이온코리아는 좋은 기업을 향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아장아장 캠페인’은 라이온코리아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56개 지자체의 출산가정에 ‘아이! 깨끗해’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규모만해도 연 평균 5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라이온코리아는 2023년 11월에는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장아장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재단장했다. 그 결과 라이온코리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5억원 상당의 임신부 위생용품 세트를 마련해 매년 4만 명의 서울시 임산부를 지원하게 됐다.

‘임신부 위생용품 세트’는 아이! 깨끗해 항균 손 세정제, 시스테마 시린센트 6024 치약, 시스테마 약한 잇몸용 칫솔 등으로 구성됐다. 임신기간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약해진 임신부의 건강과 위생 관리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이 라이온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임신부 위생용품 세트’가 포장된 상자 곁면에는 사회적기업 아립앤위립 소속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메시지가 담겼다. ‘꽃보다 귀한 우리 손녀 엄마가 된 걸 축하한다’는 문구는 아기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엄마’가 될 임신부의 건강한 일상도 잘챙기길 바라는 의미를 표현해 따뜻함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라이온코리아는 사회적기업 아립앤위립과의 협업으로 소외계층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제품을 기부해 국민을 지원하는 형태는 라이온코리아가 유일무이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각 지자체는 예산



하고 있다. 라이온코리아는 올해 5월 인천 초등학교 12개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원으로 위생교육 프로그램 ‘슈퍼 건강 히어로’ 캠페인을 운영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라이온코리아는 위생과 청결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여 올바른 이닦기와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는 ‘30일 챌린지’도 실시했다.

이후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7월에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참여형 교육 행사도 기획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슈퍼 건강 히어로’ 온라인 수업을 성실히 수행해 높은 완주율을 기록한 우수 학교를 선정했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는 아이들의 성취도와 흥미를 한층 높였다는 것이 라이온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라이온코리아는 생활가정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소속 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이온코리아는 2022년부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안전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전 확보를 돋기 위해 제품 식별용 점자 태그를 제작·보급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보편적 소비자 기본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라이온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라이온코리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업해 시각장애인의 직접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시제품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라이온코리아가 제작한 점자 태그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위생적이고 유연한 실리콘 소재로 안전성과 점자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 다양한 규격의 제품에 목걸이처럼 걸어 쓸 수 있도록 분리형 디자인을 적용해 편의성과 활용성까지 갖췄다.

이밖에 라이온코리아는 2020년부터 4년 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와 함께 ‘아이 깨끗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 바 있다.

제품 포장 디자인부터 판매용 세트 조립과 판매까지 밸달장애인들이 참여했으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급여 등으로 지급됐다. 총 4년간의 누적 기부금은 1억8000만원에 달하고 총 13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냈다.

라이온코리아 ESG&커뮤니케이션 실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생애 주기별 적합한 건강 관리법을 제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7월 8일 인천 당하초등학교에서 ‘슈퍼 건강 히어로’ 행사가 열렸다. /라이온코리아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학생들이 실습 중에 라이온코리아의 칫솔과 치약을 활용하고 있다.

범위 내에서 손수건, 물티슈, 체온계, 아기 손톱깎이, 수유 패드 등 임신부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민영 라이온코리아 ESG&커뮤니케이션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 위기 문제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임신부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이 정부 손을 맞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지역 사회에서 민·관·학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에서 라이온코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서대문구 보건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 분야 발전에 앞장서 왔다.

라이온코리아는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 ‘양치학교 구강교실’,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열고,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비롯해 보호자들에게 맞춤형 치약과 칫솔을 지원했다.

보건소, 연세대 치대와 구강건강 앞장 영유아·초등생 맞춤형 치약·칫솔 지원 구강교실 등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과 협업… 노인 일자리 창출 시각장애인 안전 위해 점자 태그 제작

또 라이온코리아는 2019년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자사 오랄 관리 브랜드 제품 ‘시스테마’ 칫솔과 ‘작트’ 치약으로 예비 치과의사들이 구강관리법을 연구하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치의학과 본과 학생들은 구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용품의 실질적인 사용법,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추천 등에 중점을 두고 실습을 해 왔다.

이러한 라이온코리아의 교육 현장 지원 활동은 2015년과 2018년에 교육부로부터 ‘교육 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자사 공장이 위치한 인천에서도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버스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홍명보호’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준비 시동
- ▲영국 양궁 선수, 패럴림픽 최초 임신 중 메달 획득

/사진 뉴시스

- ▲문체부, ‘9월 독서의 달’ 맞아 전국서 책 읽기 행사
- ▲올가을 서울 페스티벌… ‘서울축제지도’서 확인해요

/사진 뉴시스



- ▲파리올림픽 열기 있는다…제105회 전국체전, 10월 경남서 개막
- ▲‘경복궁 야간 관람’, 4일부터 선착순 예매

/사진 뉴시스